

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 제정

- 10월 22일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2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‘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(UNESCO Prize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)’이 제정되었다.

※ 세계시민교육(GCED : Global Citizenship Education)은 평화, 인권, 문화다양성 등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하며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에 포함

- 유네스코는 2025년부터 2년마다 총 2개 부문(청년주도 단체 및 기타 개인, 기관, 비정부기구)에서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에 공로가 있는 총 2개 수상자(기관)을 선정하여 각 5만 미불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.
- 수상자(기관)은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심사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.

- 박상미 주유네스코대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정세하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돕는 세계시민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,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

- 우리나라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이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유엔과 유네스코 내에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결성을 주도하는 등 관련 논의를 선도해 오고 있다.

-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상의 제정을 통해 관련 모범사례들이 공유되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이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. 끝.

담당 부서	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 유네스코과	책임자	과 장	김지영 (02-2100-7554)
		담당자	외무행정관	김수민 (02-2100-7555)